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질병관리본부
NEWS LETTER
2009년 12월호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

##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 감시 FMTP –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과–

**현장실무자 교육훈련 프로그램(FMTP)은 보건소 실무인력에게 대학원 석사과정에 준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직장 내 교육(on-the-job training)형식의 프로그램이다.**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는 미국질병통제센터(CDC)의 역학조사관 교육 프로그램인 FETP(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와 저개발국 공중보건사업 관리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SMDP(Sustainable 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를 기본 모델로 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정되었다.

전염병 분야에 우선 적용되었고, 현재는 건강증진, 방문보건,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 감시영역으로 확대되어 사업 분야별로 별도 운영 되고 있다.

### 추진배경 및 목적

1995년 지역보건법에 의해 지역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건강통계가 없어 지역 대표 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 · 감시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5년 12월 지역사회 조사 · 감시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인력개발 계획(안)이 수립되었다.

이후 보건소 조사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06년 만성질환 조사 · 감시 FMTP 사업』을 신설하여 3개 시도, 59개 보건소 공무원 121명을 교육하였고, 2007년부터는 만성질환 관리 영역이 추가된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 감시 FMTP』를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연계하여 16개 시도, 251개 보건소




## 목 차 Contents

01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
_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 감시 FMTP

04 News Focus_ 기후변화건강포럼 종합학술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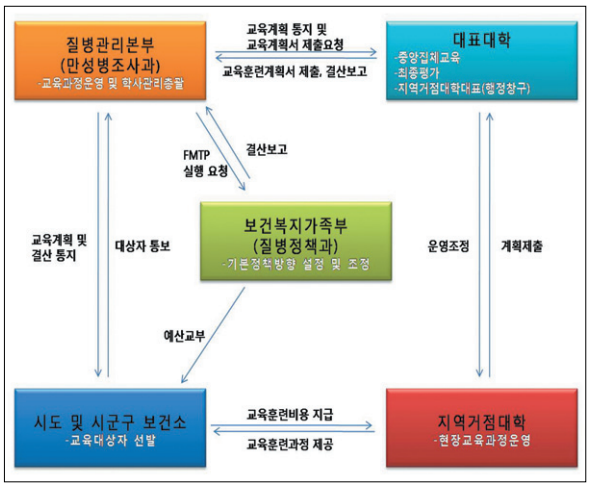
06 국내행사_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결과발표
_ 제6차 손상정책포럼

10 PHOTO News_ 유전체 센터 송년 음악회

12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_ 『2009년 해외유입 전염병 병원체 · 매개체 조사사업』결과 보고 워크숍

445명, 2008년에는 16개 시도, 253개 보건소에서 460명, 2009년 현재 253개 보건소 456명이 본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

2007년부터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 FMTP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연구』를 진행하여 표준화된 만성질환 조사·감시기법을 보급·교육하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의 만성질환관리 및 조사·감시 전문 인력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추진체계

| 구 분 | | 역 할 |
|---|---|---|
| 보건복지가족부<br>(질병정책과) | | ○ 기본 정책 방향 설정 및 조정<br>○ 예산수립 및 예산교부 |
| 질병관리본부<br>(만성병조사과) | |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br>○ 교육·훈련 운영지침 수립<br>○ 교육계획 및 결산 통지<br>○ 대상자 통보<br>○ 교육·훈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요청<br>○ 교육·훈련 운영 관리 |
| 시·도 및<br>시·군·구 보건소 | | ○ 대상자 선정<br>○ 교육·훈련 비용 지급 |
| 위탁<br>대학 | 대표<br>대학 | ○ 교육·훈련 계획서 및 보고서 취합·제출<br>○ 교육·훈련 위탁대학 협의체 구성<br>○ 운영조정<br>○ 교육·훈련 실시 |
| | 지역거점<br>대학 | ○ 교육·훈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br>○ 교육·훈련 실시 |

기관별 역할

## 추진전략

전염병과 같은 타 분야에서는 이미 FMTP 방식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이미 FMTP 방식에 익숙해진 대학 연합체를 이용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과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 FMTP'의 연계를 통해 일선 보건행정당국의 만성질환관리 사업 수행 전문 인력개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중앙교육과 지역현장교육의 적절한 조화

FMTP 교육과정은 중앙교육과 지역현장교육, 최종평가대회로 구성되어 있고, 질병관리본부, 대표대학, 지역거점대학, 보건소 공동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지역사회 대학이 교육·훈련의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집체교육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 교육의 지속성, 현장연계성, 통일성 유지 노력

총 1개월 교육·훈련(132시간)을 9개월로 분할하여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였고, 교육과 지역 현장 사업을 접목하여 교육과 사업 간 연계성을 높여 교육 효과를 높였다. 그리고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를 위해 대표대학으로 지정된 인제대 보건대학원이 13개의 FMTP 지역 거점대학의 교육 내용 개발 및 교과과정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14개 권역별 평가대회를 거쳐 최종평가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의 구연발표와 포스터 발표 등 수준 있는 행사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점수, 표창 및 상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향후계획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건소 만성질환 담당자들이 근거중심 지역의료계획과 건강증진 사업계획의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 감시 FMTP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연구』사업을 매년 진행하여 교육과정의 분석 및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자들의 시간 경과에 따른 지식, 태도, 실무능력에 변화를 파악하여, 교육효과가 지속되도록 심화교육과정 또는 만성질환 관리 과정(2) 등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2009년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 감시 FMTP 종합평가대회

11월 12~13일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대표대학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과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의 공동 주관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 FMTP 종합평가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선발된 교육생들과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만성질환 FMTP 교육훈련 위탁대학 관계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의 인사말로 행사가 시작되었고, 건국의대 김형수 교수의 진행으로 14개 시도 권역의 대표들이 FMTP 교육 · 훈련 결과물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이 제작한 100여개의 관련 포스터를 전시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행사 첫날 만찬 및 장기자랑 시간에는 충북의대 방희제 교수의 진행아래 각 권역별 교육생들이 장기자랑을 선보였다. 신종 플루의 갑작스런 유행에 더욱 바빠진 업무와 FMTP 교육 · 훈련과정을 병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역이 멋진 무대를 선보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행사 둘째날인 13일에는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 감시 FMTP 교육활성화 현안과제 및 장기계획' 이란 주제로 패널토의가 있었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박노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 김영택 과장,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 충북 영동군보건소 최정애 소장, 서대문구보건소 심선희 교육생의 열띤 토의가 있었다.

최보율 교수는 현행 FMTP 교육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나 실습시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정애 보건소장은 FMTP교육과 실무의 밀접성을 더욱 높이고 교육 과정 및 진행의 부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광명시 보건소에서 참석한 한 교육생은 교육이수에 대한 보상의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평가대회는 우수발표자 및 우수 포스터 제작팀, 권역별 성적우수자, 권역 대표들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 및 질병관리본부장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2009년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 FMTP 종합평가대회』는 신종 플루의 창궐로 일부 보건소 및 시도, 시군구 교육생 및 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어 올해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 감시 FMTP 교육 · 훈련 과정 이수자들의 완성도 있는 교육효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현재 FMTP 교육 · 훈련 사업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유지해야할 부분과 개선점을 함께 고려하여 향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 News Focus

## 기후변화건강포럼 종합학술포럼 – *기후변화 건강영향연구 성과와 과제* –

기후변화건강포럼은 창립 1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의 성과를 모아보고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취한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며 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난 12월 1일 종합학술포럼 – *기후변화 건강영향연구 성과와 과제* – 을 개최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은 폭염, 기상재해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매개체로 인한 전염병,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선행되어야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투자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건강영향에 대한 발생기전을 규명하고 예방 및 적응방안의 개발 등을 위해서는 생태, 보건, 의학, 수의, 독성, 미생물, 기상, 건축, 수질, 대기, 해양, 식품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정부, 학계, 기업, NGO가 함께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 영역을 넘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서로 영역을 넘어 소통하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로 끝나지 않고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기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의 뜻을 모아 기후변화건강포럼이 창립되었다(2008년 11월 8일).

기후변화건강포럼의 회원은 창립당시 81명이었으나 현재 약 25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12회의 월례포럼을 통하여 50여개 이상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폭염, 알레르기질환, 전염병, 매개체 생태, 식품안전, 기상재해 등 각 분야별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왔다. 그동안 기후변화건강포럼은 나름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민관의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특히 지난 12월 1일 개최된 기후변화건강포럼 종합학술포럼은 기후변화와 병원체 및 매개체, 기후변화와 역학, 기상요인과 건강영향 3개의 세션에서 구두발표 12개와 포스터발표 20개 등 총32개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매우 다양한 정부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참여하였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서로 소개하고 의견교환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진 기회였고, 또한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기후변화건강포럼은 지난 12월 1일 공동대표(이종구: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장재연: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를 선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변화건강포럼은 지속적으로 월례포럼을 통하여, 필요시 TF팀 구성을 통하여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 내용 |
|---|---|
| 창립 | "기후변화 건강포럼 창립" |
| 1차 월례포럼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 2차 월례포럼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건강피해 예방방법은 없는가?" |
| 3차 월례포럼 | "기후변화와 꽃가루! 알레르기질환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
| 4차 월례포럼 | "기후변화 경계를 넘어 함께 대안을!" |
| 5차 월례포럼 |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 6차 월례포럼 |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 |
| 7차 월례포럼 | '여름철 폭염긴급대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집중 토론회 |
| 8차 월례포럼 | "기상재해 얼마나 더 심각해질 것인가?" |
| 9차 월례포럼 | "국내 말라리아, 완전퇴치의 길은 무엇인가? |
| 10차 월례포럼 | "가을철 감염병 쯔쯔가무시증,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
| 11차 월례포럼 | "기후변화와 감염병" |
| 12차 월례포럼 | "종합학술포럼-기후변화건강연구 성과와 과제-" |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서로 소개하고 의견교환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진 기회였고, 또한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국내행사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결과발표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12월 8, 9일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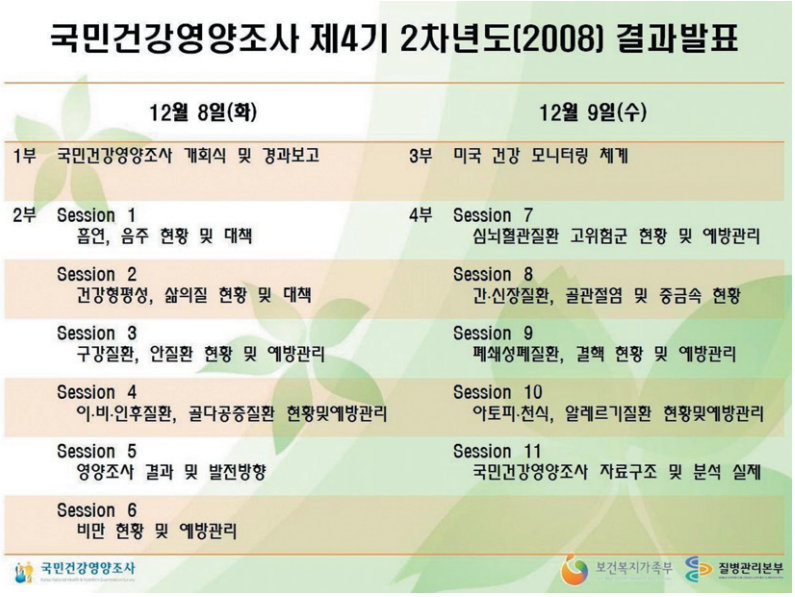
'제4기 2차년도(2008) 결과발표회' 에는 시군구 보건소 및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8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미국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사업을 수행 중인 미국 질병통제센터 보건통계국의 Rosemarie Hirsch 박사를 비롯하여 Kathryn S Porter, Steven Kinchen, Insun Kim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가 단위의 건강영양조사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여 보건정책의 입안 및 평가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정조사사업으로서 현재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 주관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매년 국가 단위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결과발표회와 결과보고서 발간을 통해 주요 건강 및 영양지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작년 11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2007) 결과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결과발표회를 통해 주요 결과와 각 분야별 질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종구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 통계 질 향상을 위한 표본 및 조사항목 확대,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개선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도 축사에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 통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을 가능케 하는 지역사회 관계자 및 질병관리본부 실무진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였다.

금년에는 발표행사 중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 및 지역 주민들의 조사 참여를 독려해준 지역 협조자에 대한 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수상자들은 장관 표창 2명,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47명으로, 총 49명이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크게 검진, 건강설문, 영양조사 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보건 영역을 다루고 있어 세부 분야별로 결과를 밀도 있게 토의하기 위해 이틀 간 4부, 11개 세션으




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하였다. 흡연, 음주, 영양,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일선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직접적인 결과 활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안검사, 이비인후검사, 골밀도 및 체지방검사, 흉부X선검사 등 2008년 처음 도입된 조사의 결과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09년은 2007년부터 시작된 제4기 조사가 완료되는 해로서, 내년 결과발표회에서는 국가 단위의 통계뿐 아니라 시도별 통계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2009년에 신규 도입된 골관절염검사, 식품섭취조사 추가조사 결과 등도 발표될 계획이여서 큰 기대를 모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12월에 발간하여 이후 홈페이지(http://knhanes.cdc.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주요 영역별로 심층 분석하여 「주간 건강과 질병」을 통해서도 발표될 것이다.










2009년은 2007년부터 시작된 제4기 조사가 완료되는 해로서, 내년 결과발표회에서는 국가 단위의 통계뿐 아니라 시도별 통계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2009년에 신규 도입된 골관절염검사, 식품섭취조사 추가조사 결과 등도 발표될 계획이여서 큰 기대를 모았다.

## 제6차 손상정책포럼

**손상 예방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제안 및 경험을 교류하고자 '제6차 손상정책포럼'이 지난 11월 24~26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 홀과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연이어 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손상 관련 부문 간의 정보 교류와 손상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손상정책포럼을 연 2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및 관련기관, 민간, 시민단체, 학계간의 국가 손상 통합 감시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6차 포럼은 '손상 예방을 위한 국가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손상에 대한 정책, 국가의 도로안전 전략, 각국의 어린이 안전, 안전도시와 손상 예방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의 손상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손상 현황과 손상 예방 활동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더 의미가 있었다.

국가 정책과 전략에 대한 발표에서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한국의 손상문제 현황과 손상예방정책을 분야별로 검토하고, 손상예방의 범국가적 목표 설정과 리더십 확립, 손상 감시체계의 강화, 의도적 손상과 비정규직 등 손상예방활동의 사각지대 해소와 환경적 접근 강화를 향후 손상 정책 과제로 지적하였다. 서울의대 신상도 교수는 공중보건의 핵심 영역의 하나인 우리나라 외상전문치료체계의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체계 구축과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도로안전전략 발표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이환승 박사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과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감소을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다각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방안을 개선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세의대 이강현 교수는 교통사고 예방의 실천 방안을 다양한 교통사고 및 예방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베트남은 심각한 교통사고 손상의 60%가 오토바이에 의해 발생하며 교통사고 사망의 34%가 음주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의 법제화와 음주운전금지와 관련된 법규 제정, 음주 운전 금지를

강화하는 법개정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말레이시아는 2006년 시작된 국가도로안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도로안전에 대한 교육과 공학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처 및 지역간 협력을 위한 노력을 발표하였다.

어린이 안전부분에서 이화의대 박혜숙 교수는 2003년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1-14세 어린이의 손상 사망률은 10만명당 6.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어린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손상안전지표를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모니터링하여 근거중심의 안전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정윤경 국장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아동안전캠페인 및 교육 · 홍보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김태숙 국장은 학교안전공제회로 수집된 학교안전사고의 현황과 개선된 자료수집체계에 대해 소개하였다.

캄보디아 측 대표자는 어린이 총 손상 사망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가장 많고, 1-4세 어린이의 경우는 익수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익수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 · 시행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손상예방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과 저소득층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적 개선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안전도시와 손상예방 부분에서는 협성대 박남수 교수가 국제 안전도시의 개념과 국제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역사회 손상예방의 접근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송파구와 천안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안전도시사업 및 실행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였다.

몽골의 경우,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사망원인 중 5위를 차지하며 그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에 손상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법을 제정하였지만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중국 역시 손상 현황과 손상예방의 전략을 발표하였고 안전도시 및 손상예방을 목표로 다부문간의 상호 협력과 함께 안전도시와 관련한 다국가적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은 WHO 서태평양지역 각국 전문가들 간에 손상에 관한 문제 인식을 같이한 뜻 깊은 자리로, 손상예방에 대한 국가별 정책, 도로안전 전략과 어린이 안전 등 손상 예방에 관련된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손상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 PHOTO News

## 유전체 센터 송년 음악회

유전체 센터 송년 음악회는 2007년 형질연구과의 단독 콘서트로 시작되어 2008년에는 바이오과학정보과와 형질연구과의 조인트 콘서트로 신촌 GEEK 라이브 하우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으며, 올해는 특히 GWP 일환으로서 센터 차원으로 더욱 확장된 연합 콘서트로 계획 추진되어 고려대 안산 병원 호흡기 내과 신철 교수님을 특별 게스트로 초빙하여 유전체센터 센터장님 및 각과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연구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잊지 못할 멋진 공연으로 간직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홍대 라이브 롤러코스터 홀에서 제 3회 유전체센터 송년음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크게 춥지 않았지만 겨울비가 촉촉이 내린 가운데 화려한 무대의 막이 올랐고 조명과 함께 열광하는 환호성과 모두들 성탄절 즈음하여 연말을 뜻 깊고 활기찬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즐거운 음악과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 유전체센터 밴드 “지니어스 (Jinny-us)"는 ”genius; 과학 또는 음악분야에서 창조적이고 재능있는 인재“라는 사전적 뜻에 각 맴버들의 영문 이니셜 J 와 Y를 착안하여 ”지니어스 만의 음악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뜻에서 초기 구성된 리드기타 (황주연, 형질연구과), 베이스 (김희연, 바이오과학정보과), 드럼 (허지연, 바이오과학정보과), 키보드 (반효정, 바이오과학정보과), 보컬 (이지영, 김영진, 형질연구과)의 맴버들로서 작년 2회 공연 때 결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세컨기타 (박미선, 바이오과학정보과)와 더욱 보강된 보컬 (최형진, 생물자원은행과 및 최미현, 형질연구과)이 더해져 풍성하고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가을부터 틈틈이 점심시간 및 주말을 이용하여 연습 및 합주를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GWP 차원에서 각 과의 밴







드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연습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자리에 함께해 주셨던 모든 분들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작년공연보다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열린 음악회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여러 다른 센터장님도 참석해주셨을 뿐 아니라, 정년퇴임하셨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하셨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초대에 응해주셔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전체센터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당일 선보인 무대는 1부 지니어스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스페셜 게스트인 고대 안산병원 신철교수님 밴드와 지니어스의 조인트 무대로 전설적인 에릭 클랩튼 곡 중 리틀윙, 원더풀투나잇, 코카인 등 다양한 올드락의 인상 깊은 연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차 무르익어 2부에서는 과 연구원들이 센터노래자랑에 참여하였으며, 시상식과 함께 유전체센터구성원 뿐 아니라 참여해주신 친구 및 동료 분들에 대한 경품추첨 행사도 진행되어 모두들 함박웃음으로 가득차고 기쁘게 참여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신종플루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가운데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화합으로 진행되었던 유전체센터 송년회 겸 연주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콘서트 끝까지 남아 응원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공연은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남을 멋진 추억으로 간직되었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 『2009년 해외유입 전염병 병원체 · 매개체 조사사업』결과 보고 워크숍

### – 신종인플루엔자 등 해외 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2010년 검역대책 수립 –

**국립인천검역소(소장 정한덕)는 질병관리본부 지원으로 12월 3일 ~ 4일 양일간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09년 해외유입 전염병 병원체 · 매개체 조사사업』결과 발표와 신종 인플루엔자 등 해외유입 전염병의 효율적인 검역대책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 이부현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장, 소재범 인천의료원 소화기내과장, 정한덕 국립인천검역소장, 및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검역관 등 각 계 주요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국민건강의 파수꾼인 전국 검역관들에게 비상시기에 적극적인 협조와 능동적인 대처를 당부하면서, 지난 4월 말 전 세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5월 초 국내 발생이 보고된 이후로 하루도 편한 날을 보내지 못한 검역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였다.

워크숍은 1,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1부 에서는 전염병 병원체 · 매개체 결과보고로 **국립부산검역소는 부산지역의 해외유입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태조사, 국립군산검역소는 군산항 해외유입 전염병 병원체 · 매개체 조사 결과, 국립김해검역소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에 대한 고찰, 국립통영검역소는 검역구역 내 전염병 병원체 · 매개체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병원체 소독 및 매개체 방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하였고 향후 조사사업에 발전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2부는 **검역업무 관련 전문가 초청강연**으로서 **신종인플루엔자 A(H1N1)pdm 진단과 국내 매개체 전파 바이러스성 질환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검역구역 내 매개체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선 검역관의 지식습득 및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향후 각 검역소의 검사실 검사 및 진단능력 향상으로 일본뇌염,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 검출 또는 확인, 바이러스 분리법 기술지도 등 병원체 유전자 검출법에 대하여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검역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보공유의 장이 됨과 동시에 국립검역소의 2010년도 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 행 일 : 2009. 12월 (통권 제25호)
발 행 인 : 이종구
편집위원 : 권준욱, 박미정, 배송미, 심혜용, 이혜자, 최우영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우) 122-701
전 화 : 02-380-2631~5 팩 스 : 02-354-2723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ISSN 1976-7579
12
9 771976 757908